

노인부양의 문제와 대안: 가족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 경 신

노인문제는 노년기에 속한 세대들이나 그 가족들의 재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副田義也, 1980). 즉 노인과 그의 가족이 건강이나 문화생활에서 최저 상태를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계기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인쪽의 문제로 노동 능력의 상실 및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일상적인 활동력의 쇠퇴, 자주적 성격의 상실 등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쪽의 문제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가사적, 신체적 및 정서적 부양이 각각 불충분하거나 완전히 결여되어 있을 경우 등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문제의 발생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인구층의 증가를 그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 공중환경 위생의 개선, 생활 조건의 향상 등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제2의 인구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사회를 초래하였다.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15% 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진국가들에서도 노인인구의 절대수 및 비율이 차츰 높아가고 있다 (<표 1> 참조).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으로 부양과 보호가 요구되는 인

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부양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보아오던 한국에서의 고령화 현상은 부모자녀간 관계의 지속기간을 연장시켜 가족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성미애, 1991).

<표 1> 국가별 부양비

국가	조사년도	A	B	C	D	E
한 국	1993	44,056	30,966	2,362	5.4	7.6
싱가포르	1990	2,690	1,902	162	6.0	8.5
일 본	1990	123,611	86,230	14,895	12.0	17.3
타 이	1991	56,923	36,466	2,262	4.0	12.4
중 국	1990	1131,876	755,164	63,194	5.6	8.4
프 랑 스	1991	56,536	37,175	8,046	14.2	21.6
서 독	1988	61,450	42,961	9,461	15.4	22.0
네덜란드	1990	14,952	10,305	1,920	12.8	18.6
스 웨 덴	1989	8,493	5,413	1,511	17.8	27.9
미 국	1990	248,710	163,778	31,079	12.5	19.0
호 주	1990	17,086	11,436	1,908	11.2	16.7

[A = 총인구 (단위 1000명),

B = 15-64세 인구수 (단위 1000명),

C = 65세 이상의 인구 (단위 1000명),

D = 고령자비율 = $C/A \times 100$ (단위 %),

E = 노인부양비율 = $C/B \times 100$ (단위 %)]

* 자료: UN, 인구통계연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노인

대한 부양문제의 해결이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관념상 가족내에서 노인부양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은 가족의 형태와 기능 및 가족원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져 노인부양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김송애, 1990). 그리고 혈연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호혜성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관계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가족부양의 문제를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Johnson, 1988).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족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노인 부양의 실태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구조의 총체적 변화가 노인부양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하여 첫째, 핵가족화 및 노인가족의 증가 현상을 분석, 둘째,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 유형 변화의 하나로서 주된 부양역할자인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현상을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족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인부양의 실태와 변화

전장의 <표 1>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부양비율을 제시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은퇴 연령을 고려한다면 피부양의 필요시점이 60세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총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의 5.4%에서 1990년에는 7.6%(약 332만명)로 증가했다 (통계청, 1993). 또한 85세 이상의 장수 노인도 1990년에는 95,000여명으로 1980년과 비교하여 77.2%가 증가했으며, 노인부양비율도 60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1970년 10.3%, 1990년 11.5%에서 2000년에는 14.8%로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 1993).

노인들의 가족형태를 <표 2>에서 살펴 보면, 전체 고령자 가구에서 10%는 노인이 단독으로 사는 가구인데, 1985년 223,000가구에서

342,000가구로 61%가 증가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의 노인단독가구는 7.7%인데 비하여 군지역은 14.3%여서 농촌지역에서의 노인 부양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단독가구에서 부부가구를 포함시킨다면, 85년 395,000가구에서 5년 동안 56.7%가 늘어나 620,000가구를 이루고 있어 4명의 노인중 1명 이상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족형태 (1990년)

가족형태	시지역	군지역	전국
1세대가구	9.6 %	19.4 %	13.9%
부 부	8.9 %	18.8 %	13.2%
기 타	0.7 %	0.6 %	0.7%
2세대가구	30.8 %	27.7 %	29.4%
부부+미혼자녀	13.4 %	11.7 %	12.7%
편부모+미혼자녀	6.9 %	4.5 %	5.8%
부부+양친	0.6 %	0.7 %	0.6%
부부+편부모	1.6 %	3.4 %	2.4%
부부+그 형제자매	0.0 %	0.0 %	0.0%
기 타	8.3 %	7.3 %	7.9%
3세대가구	49.8 %	36.5 %	44.0%
부부,미혼자녀,양친	6.3 %	6.4 %	6.3%
부부,미혼자녀,편부모	30.0 %	21.1 %	26.1%
기 타	13.5 %	9.0 %	11.5%
4세대가구 이상	1.2 %	1.5 %	1.3%
단 독 가 구	7.7 %	14.3 %	10.6%
비혈연가구 등	0.8 %	0.7 %	0.8%

* 자료: 통계청 (1993)

<표 3>에서는 노인들이 자녀세대와 동거 및 별거를 희망하는 비율과 그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대가 변할수록 노인들은 예전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짐과 동시에 최소한 1/3이상의 노인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와 별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더라도 노인들은 여건만 충족되면 별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서로가 간섭을 싫어하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맞물려 노인과 자녀간의 별거현상이 더욱 증폭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노인의 자녀세대와의 동거 및 별거의 비율과 이유

조사년도	동거율	별거율	동거이유	별거이유
1973	89.8	10.2		
1976	82.4	15.0	생계비 때문(55.5)	자식들 불편(37.5)
1981	83.3	16.7		
1983	62.5	37.5		직업관계(55.0)
1985	53.2	22.6		직장관계(51.4)
1986	75.0	25.0	자식의 도리(74.5)	심리적 부담(27.1)
1986	64.8	35.2	당연(60.4)	자녀 불편(42.0)
1987	64.5	35.5	심적 의지(33.0)	심리적 부담(43.2)
1987	56.8	43.2	당연(45.0)	직장관계(62.7)

[수치의 단위는 모두 %이며, 동거·별거이유는 최빈치임]

* 자료: 서병숙 (1991)

오늘날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나타난 생활구조의 변화중에서 대표

적인 예가 가족가치관의 변화이다. 즉 자녀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므로 이러한 선택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게 되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러한 책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부양하는 양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정신적으로 효에 대한 가치 및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비가 증가하여 대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고, 노인들의 의식 역시 독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 : 핵가족화와 노인가족 증가

1. 가구원수별 분석

한국가족의 구성인원 분석은 가족의 양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1가족의 평균 인원이 몇명인가를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구분해야 할 용어는 가족과 가구의 의미이다. 가족이란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이므로 주거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국세조사 등의 대량적 통계조사에서는 가족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여기에서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표 4>와 같이 우리 나라의 가구당 평균인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더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가구당 인원수가 5인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 4인으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3인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축소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는 농촌의 평균 가구원 수가 도시보다 많았으나, 1990년 통계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농촌의 평균가구원 수가 더 적은 결과를 보여주는 데, 이는 노인들보다도 젊은 세대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

의 감소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광역화와 같은 행정 구역의 조정 등에 따라 도시지역이 확대되어 통계치에 반영된 점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4> 연도, 지역에 따른 인구, 가구 및 가구당 평균 인원수

	지역	1970	1975	1980	1985	1990
인구수	전 국	29,235,734	33,504,147	36,230,762	39,121,522	42,101,544
	도 시	11,603,363	16,037,367	20,652,868	25,584,180	31,431,791
	농 촌	17,632,371	17,466,780	15,577,894	13,537,333	10,669,753
가구수	전 국	5,576,277	6,647,778	7,969,201	9,571,361	11,354,540
	도 시	2,377,179	3,331,248	4,669,976	6,330,798	8,462,417
	농 촌	3,199,098	3,316,530	3,299,225	3,240,563	2,892,123
가구당 인구수	전 국	5.24	5.04	4.55	4.09	3.71
	도 시	4.88	4.81	4.42	4.04	3.71
	농 촌	5.51	5.43	4.72	4.18	3.69

*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표 4>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1990년 현재 약 3.71인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1966년의 가구원수 최빈치는 6인으로 그 최빈율은 15.6%였으며, 1970년과 1975년의 최빈치는 5인으로 감소했는데 그 최빈율은 각각 17.7%와 18.3%였으며, 1980년에는 최빈치가 4인으로 감소하였다. 1985년과 1990년 역시 최빈치는 4인이나 최빈율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 통계에서는 이제까지 4인이나 5인의 비율이 높

왔던 것에 비해 3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핵가족화 혹은 소수자녀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세대구성별 분석

<표 5>는 가족구조를 세대구성별로 표시한 것으로, 한국가족의 세대구성은 1세대에서 3세대까지 보편화되어 있고 4세대 이상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한국가족은 1966년에서 1990년까지 세대구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세대와 1세대 가구가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1세대, 2세대 및 단독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나 3세대와 4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1980년까지는 도시가구가 농촌가구보다 1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고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1세대 및 단독가구의 비율이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촌가구의 경우 노인단독 혹은 노인부부 세대만의 거주 형태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다.

<표 5> 연도 및 지역에 따른 세대구성 (일반가구)

지역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단독	비전족
전국	376,468 (6.75)	3,905,660 (70.04)	1,230,232 (22.06)	63,917 (1.15)		
1970 도시	217,839 (9.16)	1,793,230 (75.44)	353,809 (14.88)	12,301 (0.52)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농촌	158,629 (4.96)	2,112,430 (66.03)	876,423 (27.40)	51,616 (1.61)		
	전국	446,826 (6.72)	4,580,227 (68.90)	1,277,783 (19.22)	61,935 (0.93)	281,007 (4.23)	
1975	도시	275,169 (8.26)	2,427,459 (72.87)	461,645 (13.86)	16,315 (0.49)	150,660 (4.52)	
	농촌	171,657 (5.18)	2,152,768 (64.91)	816,138 (24.61)	45,620 (1.38)	130,347 (3.93)	
	전국	658,416 (8.26)	5,457,340 (68.48)	1,311,755 (16.46)	41,990 (0.53)	382,743 (4.80)	116,957 (1.47)
1980	도시	421,911 (9.03)	3,335,437 (71.42)	591,229 (12.66)	13,755 (0.29)	220,088 (4.71)	87,556 (1.87)
	농촌	236,497 (7.17)	2,121,903 (64.32)	720,526 (21.84)	28,235 (0.75)	162,655 (4.93)	29,401 (0.89)
	전국	915,529 (9.57)	6,412,196 (66.99)	1,382,870 (14.45)	39,960 (0.42)	660,941 (6.91)	159,865 (1.67)
1985	도시	594,660 (9.39)	4,421,238 (69.84)	746,866 (11.80)	15,736 (0.25)	427,574 (6.75)	124,724 (1.97)
	농촌	320,869 (9.90)	1,990,958 (61.44)	636,004 (19.63)	24,224 (0.75)	233,367 (7.20)	35,141 (1.08)
	전국	1,219,667 (10.74)	7,529,077 (66.31)	1,382,749 (12.18)	35,342 (0.31)	1,021,481 (9.00)	166,224 (1.46)
1990	도시	813,091 (9.61)	5,875,871 (69.43)	896,325 (10.59)	18,238 (0.22)	723,595 (8.55)	135,297 (1.60)
	농촌	406,576 (14.06)	1,653,206 (57.16)	486,424 (16.82)	17,104 (0.59)	297,886 (10.39)	30,927 (1.07)

[괄호속의 수치는 %임]

*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3. 가족유형별 분석

이제 한국가족의 유형적 구성 실태를 가구 단위가 아닌 가족유형

의 구분방법에 따라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 등으로 나누어 조사할 때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족의 특성상 전국 단위의 인구 조사가 아닌 지역별 임의표집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표 6>과 같이 우리 나라의 가족유형 분포는 직계가족이나 확대가족보다도 부부가족이 더 많은 점을 보면, 전장의 가구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계가족의 비율은 전장의 결과보다는 다소 높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족 유형은 부부가족 중심으로 단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자료에서 제시한 바처럼 우리 나라의 가족형태는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핵가족화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분화현상이 증가하여, 복잡한 현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부가 그들의 미혼자녀와만 동거하는 간편한 소수가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가족구성원들이 본가를 떠나 그들만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핵가족화 경향을 증가시켰고, 이 경향은 점차 농촌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그리하여 핵가족의 가장 보편적인 구성형태인 2세대 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도 부부가족의 비율은 65%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가족의 현실형은 부부가족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가족의 전통적 이상형은 장남이 결혼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의 형태였다. 부부가족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직계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직계가족이 형성되지 못했더라도 장남은 반드시 분가로 귀의하게 되고 호적도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부부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가족을 전형으로 하는 서구사회의 독립적인 부부가족과는 달리, 직계가족으로 변화할 잠재력을 가진 부부가족인 것이다 (유영주, 1994).

따라서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핵가족화되고 있더라도 아직 직계

가족의 형태가 이상형으로 추구되면서 가족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인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정립 및 사회정책 수립과정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가족의 이상형과 현실형은 서로 일치되지 못하여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한가지 극단적인 선택보다도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표 6> 전국 민속조사 대상지역의 가족유형별 통계

	전남(1969)			경남(1972)				경북(1974)			
	구례 위안	여천 덕촌	강진 송덕	함양 개평	창녕 죽사	남해 당저	통영 옥동	성주 안포	월성 양좌	안동 토계	상주 용유
부부가족	17	27	29	62	74	44	39	57	123	34	62
직계가족	9	35	5	37	22	32	43	48	42	19	27
확대가족		8				2	1	1	1		2
계	26	70	34	99	96	78	83	106	166	53	91

	제주(1974)		충남(1975)		충북(1976)		경기(1978)		서울(1979)	
	북제주 상귀	예산 신평	논산 교촌	단양 용부	영동 호탄	시흥 포일	화성 발산	양평 성덕	동작 동	가회동 계동
부부가족	63	72	90	36	50	79	53	35	24	57
직계가족	23	28	29	19	20	36	31	10	1	10
확대가족		1								
계	86	101	119	55	70	115	84	45	25	67

* 자료: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가족생활 유형 변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김태현(1994)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노인정책의 기본방향의 설정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 중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큰 변수라고 지적한다. 노인의 실질적 주부양자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맞벌이 자녀세대와의 동거 및 부양이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손자녀 양육 등 노인세대와의 동거를 통해 맞벌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노인의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김양희 등, 1992). 또한 노인들 자신도 자녀의 가사조력자로서의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동거형 부양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세기에 이루어진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재화와 용역이 가정 밖에서 생산되었고 여성의 교육 기회 증대, 자녀수 축소 등은 여성 고용 증가를 초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직업과 가족이라는 양면의 속성이 변화했는데, 여성고용 형태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성역할 태도의 변화, 노동력 구조의 변화 등이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1940년에는 여성의 1/4이 고용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 비율이 증가하면서 1950년 초까지 여성 취업 비율은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 고용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인적 구성도 변화하였는데, 독신 여성의 고용 비율은 비교적 일정한 반면 기혼여성의 고용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취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40년 미국에서는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독신이거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 혹은 이혼한 여성이었지만, 10년 후에는 기혼여성이 취업여성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1/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0년 후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여 1981년에는 미국에서 학령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60% 이상이 고용되었고, 미취학 자녀를 가진 경우는 47%가 고용상태였으며, 최근 1988년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이 5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자녀 성장이나 취학 후 재취업보다는 자녀 출산 직후에도 계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맞벌이 가족이 일상적인 가족의 생활유형으로 확고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87	1989	1990	1991	1992
남	75.1	74.5	73.6	72.3	72.5	73.3	73.9	74.7	75.3
여	38.5	39.6	41.6	41.9	45.0	46.5	47.0	47.3	47.3
미혼	44.3	55.8	49.1	39.5				46.4	
기혼	36.9	43.1	35.6	41.0				47.2	
계	55.9	56.5	57.1	56.6	58.3	59.5	60.0	60.6	60.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표 7>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율 추이를 살펴 보았는데, 1992년 현재 여성 취업율은 47.3%(7,609,000명)이며, 그중 기혼자율은 75.1%이고 유배우자율은 62.5%이다. 그러므로 약 475만 가족이 맞벌이 가족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단독가구 포함)의 42%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치는 이제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족의 문제가 일부 소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인 문제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표 8>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는 전문 기술직과 같은 안정된 고소득의 직업 유형보다는 근로직이나 서비스직과 같은 저소득의 직업 유형에 더욱 치중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많은 맞벌이 가족이 육아나 가사노동을 유료 대리자를 통해 해결하기가 어려우리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맞벌이 가족의 부모동거 비율은 하위직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보상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김양희 등, 1992), 이처럼 하위직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노인동거부양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8> 여성의 직업 유형별 취업율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전문기술직	2.4	2.0	3.5	5.4	7.7	8.5	9.6
사무직	2.2	3.6	7.9	10.2	12.8	13.8	14.4
판매직	14.3	14.3	16.5	18.3	16.9	17.1	17.5
서비스직	10.3	11.2	12.0	17.0	16.7	17.3	17.7
농림수산업	58.0	51.9	38.9	27.6	20.3	18.5	18.2
생산노무직	12.9	17.0	21.1	21.4	25.6	24.8	22.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가족변화의 측면

1. 부양방법의 대안 모색

노인부양은 크게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누고, 사적부양은

다시 자기부양과 가족부양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서병숙, 1991). 가족부양은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받는 형태와 독립세대나 시설에 수용되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전술했듯이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하여 노인, 특히 신체적 서어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부양방법에 관한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의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여 주간에는 시설에서 노인을 보살피며 야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탁노방법은 가족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게 하면서 동시에 가족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세대간의 갈등 조절

노인과 자녀세대와의 동거 여부를 떠나 노인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할수록 또한 자녀와의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종숙, 1987; 성규탁, 1990; 조병은, 1990; 최혜경, 1985; Bengston & Schrader, 1982; Sussman, 1985). 일상생활에서의 가사적 원조나 의존상태보다도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효에 대한 기대감'은 갈등의 소지가 되어, 부모의 요구가 높으면 세대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가족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아들에 대한 기대감은 며느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고부갈등의 심각성을 초래한다.

세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족 갈등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관계가 밀접한 자녀와의 분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성과 의존성의 상반된 욕구가 공존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가 지닌 전통적 가치관과 자녀 세대의 미래 지

향적 사고는 일치될 수 없으므로 갈등이 생긴다. 근본적으로 누구나 노인이 되면서 보수적인 경향이 커져 자신의 의견과 행위를 절대시 하고 새로운 것에는 폐쇄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제, 부모 자녀간에 상호부조의 개념이 형성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효의 개념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으로, 부모는 오랜 기간동안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은 성장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위해 수행하는 여러 서비스들은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상호교환 의식이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절충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3. 노인의 개인적 대처

이제 노인 부양의 문제는 전통사회로의 회귀를 강요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관념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 그러한 방법으로 노인 부양이 이루어질 때에는 부모와 자녀관계의 정신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찍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발달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아직 전통적인 가족주의, 또는 여기에서 확대된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치를 추구하여 왔으므로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도 확고히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유료 양로원이나 노인홈 등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정책도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 노년기에 진입하는 세대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인인구의 획기적인 증가는 기정 사실이므로 노인 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자녀의 부모 부양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독자인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사회복지정책이 취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연금제도, 보험제도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이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볼 때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전반적인 생활설계를 통하여 주거문제나 일상생활의 형태 역시 노후를 예상하여 준비하고 서서히 변화시키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과 훈련이 필요하다.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교육의 기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4. 가족부양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 개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골격은 경로효친사상의 전통적 배경과 문화적 규범에 근거해서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가족중심의 노인복지 향상은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깊은 서구사회에서도 최근들어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김동일, 1991). 1960년대 후반부터 구미각국은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가족단위로 각종 복지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원칙은 가족의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를 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측면이 있다 (김태현, 1989; 최성재, 1989).

가족부양기능의 강화는 정부가 사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급적 노인이 가정으로 부티 이탈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정부가 적극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실천적 방법으로 우선 노부모부양 수당을 현실화하고 면세혜택을 강화하는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간의 정서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인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활동,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부양가족의 집단적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것은 가족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다. 가족과 사회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순환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문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화된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은 먼저 가족 내에서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것을 사회와의 공동 노력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노인문제 역시 가족만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인 개인을 비롯하여 가족 및 사회가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일 (1991).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한국 가정복지 정책과 노인문제. 한국가정복지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 김송애 (1990).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들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 박충선 · 서동인 · 신화용 · 조병은 · 최규련 (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 (3), 285-306.
- 김종숙 (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1989). 노인가족 부양정책.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정무장관 제2실 정책자료집.
- 김태현 (1994). 노인정책과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교육과학사.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7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성규탁 (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 10, 163-181.
- 성미애 (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부담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조병은 (1990).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최성재 (1989). 노인복지정책 방향의 재정립.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정부장관 제2실 정책자료집.
- 최혜경 (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70-199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 통계청 (1970-1992).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1970-1992).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1993). *한국의 고령자 실태분석*.
- 副田義也(1980). *老後問題論*. 東京: 垣内出版.
- Bengston, V. L., & Schrader, S.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J. Mangen & W. A. Peterson (Eds.), *Handbook of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Johnson, C. L. (1988). Interdependence, reciprocity and indebtedness: An analysis of Japanese American kinship rel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43, 114-120.
- Sussman, M. B. (1985).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In R.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pp. 415-444).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이글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金慶信 교수 앞으로 하시
기 바랍니다.